

살기 좋은 서노송예술촌 만든다

전주시, 프로젝트 행정협 워크숍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등
추진사항 보고 현장 점검

전주시는 5일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전주 업사이클센터 건립 등 현재 노송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8개 사업 부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행정협 의회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은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발족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행정협의회의 심화과정으로 마련됐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선미촌 일대를 돌며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이상 도시재생과) △전주시 업사이클센터 건립(자원순환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여성가족과) △선미촌 영상기록물 제작(문화정책과) △중영(선미촌지구) 하수관로 정비(하수과) △중노송동 마을건강복지관 소로개설(완산구 건설과) 등 8개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워크숍을 가지기 앞서 김 시장은 현장시찰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이 서노송예술촌 프로젝



5일 전주시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인근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행정협의회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트 확대된 배경과 추진 경과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각 부서간의 협조와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들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로 자리를 옮겨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센터장의 '성매매여성 인권과 성구

매 남성문화'를 주제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부서 과장과 업무담당자들은 추진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는 여성 인권과 주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치

유하는 과정 그 자체"라며 "그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도시재생, 혁신캠퍼스, 업사이클링센터, 여성자활지원 등 여러 중앙부처 사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수행되는 만큼 일관된 가치 지향과 칸막이 없는 활발한 소통이 절대적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경영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전주시, 예비 사회적기업 등 참석 사회적경제 프로보노데이 실시
경영·세무회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기업 고민 분석 해결책 제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 경영 전문가들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전주시는 5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지역 예비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2018 전주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데이'를 개최했다.

프로보노퍼블리코는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라는 라틴문어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전문적인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는 참여기업 사전조사를 통해 △경영 △홍보·마케팅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재능기부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기업의 고민에 대해 분석하고 1:1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영분야는 박용남(주)에니실리안화교 대표가, 홍보·마케팅 분야는 유성우 SS창업경영연구소 대표가

도움을 줬다.

또한, 인사노무 분야와 세무회계 분야에는 각각 김호진 노무사와 류보선 회계사와 여론정 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는 향후 재능기부에 나선 프로보노와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보노 데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성용목(주)릴라이언스대표는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응모를 했다.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과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에게 보다 유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5일 원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열린 '푸르밀-한국전기안전공사 어린이 전기안전 공동 캠페인 협약식'에 참석한 신동환(왼쪽 네 번째 부터) 푸르밀 대표이사과 조성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11일부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특별단속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만성지구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에코시트 데시앙 네스트의 분양당첨자 계약기간 동안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뺨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뺨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따라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효철 기자

이를 위해, 시는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단속반을 구성, 계약기간인 3일 동안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행위 △무등록업자와의 중개거래 △컨설팅업자의 매매·교환·임대차계약 등 사실상 중개업인 행위 △무등록 보조원 고객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구발 등 조치를 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여행사연합회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 협약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여행사연합회(KTAA)와 5일 전라북도예술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북여행상품개발 및 수도권대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북지역 관광지 답사 및 팸투어 참여를 통한 전북지역 상품 개발과 상호간의 추진사업 연계, 그리고 협력분야 정보 공유 등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과 관광마케팅을

공동추진 등이다.

이 협약을 위해 (주)술향공여행사, 흥익여행사, 철도닷컴, 다음래저, 동백여행사, 로망스투어, 롯데관광, 믿음여행사, 삼성여행사, 여행스케치, 테마캠프, 현대마린개발 등 전국 12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들은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건여행권역'을 답사한다. /송효철 기자

인후2동주민센터, 전주박물관 등서 소외아동 문화체험행사

인후2동주민센터는 5일 관내 소외계층 아동 30여명과 전주 박물관 등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철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인후2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이와 같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은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야외 나들이를 통해 이들의 정서안정과 소통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송효철 기자

참여아동들은 국립전주박물관과 전북도립미술관을 방문해 책에서 배운 우리 지역 문화, 역사, 유물들을 이해하고 서화동 예술마을에서는 서예와 나무인형만들기, 손수건염색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구들과 함께 하니 박물관, 미술관도 지루하지 않고 배우는 것도 많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눈 앞에서 경찰 동료 잃었는데... 용산참사 본따 대테러훈련

경찰이 2009년 1월 '용산 참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한 '대테러전술시범'이 경찰들에게 대한 일종의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7월 '실전과 같은 상황 조성, 테러 사건 발생 시 특공대원 진압 능력 배양'을 목표로 서울 남태령 경찰특공대 운동장에 용산 참사 때와 유사한 구조의 가상 망루를 설치해 진압 훈련을 했다. 훈련에 투입된 경찰특공대 135명 중 일부는 철거민 농성자 역할을 맡아 참사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는데, 이 훈련이 당시 사고로 동료를 잃은 경찰들의 슬픔을 자극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트라우마를 키우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동료 잃은 경찰 트라우마 자극하는 훈련은 인권 침해 진상 규명 안된 상태에서 당시 강제 진압 정당성 부각"

원회는 5일 '용산참사 사건 진상조사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본 사건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들은 해당 사건으로 동료를 잃은 슬픔과 당시 위험한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훈련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지휘부가 본 사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유가족과 경찰특공대원의 트라우마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본 사건을 대테러작전으로 명명하고 경찰 강제 진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이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망루진압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훈련 시기는 경찰지휘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제기된 나오기 전이었고,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은 때로 본 사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으며 "경찰이 유사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남일당 망루를 연습하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진압을 재연하는 등의 훈련을 단행한 것은 경찰이 본 사건에서 공권력 행사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은 추상용 서울청장 등 경찰지휘부 7명, 기자 14명, 서울청 협력단체 회장단 45명을 초청해 '대테러전술시범' 종합훈련으로 건물 옥상 망루 진압 훈련을 벌였다. 이 훈련은 그해 1월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을 떠올리게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조사위는 "철거 현장과 같은 민생 관련 현장의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치료 및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시스

고창 한 병원 응급실서 행패 40대 '덜미'

고창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간호사를 성희롱한 40대 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5일 응급의료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5분께 고창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원무과 직원 B(25)씨를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체 특정 부위를 검사해 달라며 간호사 C(25·여)씨를 성희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주취 폭력을 휘두른 전력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뉴시스

한밤 중 속옷만 입고 옆집 침입 초동생 추행 50대 실형

한밤 중 속옷만 입고 옆집에 들어가 잠자던 남자 아이를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는 추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15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B(11)군의 기습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속옷만 입고 있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좌)지광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는 5일 미래 인재 양성 및 기술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광-전주생명과학고, 우수인재 양성 협약 체결

전주 덕진구 대한방직터에 143층의 초고층 빌딩건설을 추진중인 '주식회사 지광'은 5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와 미래 인재 양성 및 기술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됐으며 전은수(학) 지광 대표를 비롯, 김종근 생명과학고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측의 상호 정보와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내 직접적인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광은 오는 2019년 3월 개장예정인 (주)지광빌딩스 세종 레이캐슬CC 골프&리조트 조성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143의스트림 타워' 복합

개발과 연계, 지역 내 인재 우선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전은수 지광대표는 학생들의 교육자재 및 인재 양성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종근 전주 생명과학고교장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짐들이 되었다"며 "장학금은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전은수 대표는 "지역 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졸업생 채용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협약에 참석한 만큼, 앞으로 지역정책에 맞춰 인재 채용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